

太少陰陽人の 大病과 恒心에 관한 고찰

이수경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A study on the 'Dae-Byung' and 'Constant Mind'

Lee Soo-Kyung

Dept.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1. Objectives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basic principle of 'Dae-Byung' and constant mind as a characteristic symptoms of mind-body medicine.

2. Methods

The concept of constant mind was compared with confucianism literatures such as 'The Great Learning', 'The Discourses of Mencius' and Lee, Jema's writings, and the concept of 'Dae-Byung' was investigated Lee, Jema's medical writings.

3. Results & Conclusions

The 'Dae-Byung' is a sasang constitution's own symptom and it can be occurred by discontrolled constant mind. Soyangin's dae-byung is a amnesia, and Taeumin's dae-byung is a palpitation. It is a typical symptoms to re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mind-body medicine. The early recognition of unhealthy condition is the functional disorder of intention, ethereal soul, corporeal soul, and will of four organs.

The constant mind is originated 'the constant mind' of 'The Discourses of Mencius' and the righteousness mind of 'The Great Learning'. And the constant mind of Dong-mu was contained the direction of Qi's movement based on nature Qi and emotion Qi.

Key Words: Dae-Byung, constant mind, mind-body medicine, unhealthy condition

I. 緒 論

東武가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에서 “蓋古之醫師 不知心之愛惡所欲 喜怒哀樂偏着者爲病 而但知脾胃水穀風寒暑濕觸犯者爲病故 其論病論藥 全局 都自少陰人脾胃水穀中出來 而少陽人胃熱證 藥 間或有焉 至於太陰人病證 則全昧也”라고 언급 하듯이 기존의학에서 六氣 등 外邪 중심으로 病因을 인식하던 것을 喜怒哀樂 뿐만이 아니라 心慾 또한 病因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張仲景과 宋

元明의 醫家들에 의해 밝혀지지 않은 太少陰陽人 고유의 體質病證을 제시하였다. 太少陰陽人 병증 중 少陰人 表病의 鬱狂證, 少陽人 表病의 亡陰證, 太陰人 表病의 胃脘寒證과 太陽人 病證은 독창적으로 정립된 四象人 體質病證으로 기존의학의 병증관과는 다르다¹⁾.

이러한 體質病證 못지않은 독창적 병증 중 하나가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 언급 되는 大病일 것이다. 「四象人辨證論」에서는 完

접수일 2004년 10월 20일; 승인일 2004년 12월 3일

교신저자 : 이수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82-2-958-9274 FAX : +82-2-958-9274

E-mail : sookjung@khmc.or.kr

1) “少陰人病症藥理 張仲景 庶幾乎昭詳發明 而宋元明諸醫 盡乎昭詳發明 少陽人病症藥理 張仲景 半乎昭詳發明 而宋元明諸醫 庶幾乎昭詳發明 太陰人病症藥理 張仲景 略得影子 而宋元明諸醫 太半乎昭詳發明 太陽人病症藥理 朱震亨 略得影子 而本草 略有藥理.” 『東醫壽世保元』 「醫源論」

實과 對가 되는 大病과 恒心이 物化되어 발생하는 大病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恒心이 物化된 大病의 病證으로 心의 상태가 身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病證으로 四象醫學 病證觀에서 心身病證 인식의 핵심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고에서는 太少陰陽人の 大病의 病證 발전 과정과 大病을 유발하게 되는 恒心을 『格致藁』, 『東武遺稿』,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東醫壽世保元』을 통해 살펴보고 四象醫學에서 大病이 지니는 특징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論

1. 太少陰陽人の 大病

大病은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의 두 부분에서 언급된다. 첫째는 太陰人和 少陰人の 辨證을 위해 完實과 對가 되는 大病과 太陰人和 少陽人の 恒心이 寧靜되지 않아 발생하는 大病으로 두 가지가 언급된다.

1) 完實과 對가 되는 大病

먼저 太陰人和 少陰人の 辨證을 위해 完實과 對가 되는 大病을 비교하여 설명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太陰人 虛汗 則完實也 少陰人 虛汗 則大病也 太陰人 陽剛堅密 則大病也 少陰人 陽剛堅密 則完實也 太陰人 有胸膈怔忡 證也 少陰人 有手足恍惚 證也.”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

虛汗과 陽剛堅密의 증상을 完實과 大病으로 비교하여 完實²⁾은 건강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大病은 병이 됨을 알 수 있다. 虛汗은 少陰人에게는 大病이 되나 太陰人에게는 完實한 조건이며 陽剛堅密은 少陰人에게는 完實한 조건이나 太陰人에게는 大病의 조건이 되며 그 까닭은 太陰人 病證과 少陰人 病證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完實의 표현은 동일한 四象人辨證論에 나오는 完實無病的 개념에 근거하여 건강한 상태로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1. 太陰人和 少陰人の 完實과 大病

	少陰人	太陰人
完實	陽剛堅密	虛汗
大病	虛汗	陽剛堅密

少陰人 表病의 鬱狂證과 亡陽證을 나누는 기준이 汗出³⁾로 少陰人の 虛汗은 亡陽으로 연결될 수 있는 素因을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면 太陰人 汗出은 胃脘寒證에서 제시하듯이 병이 호전되는 증후이며 氣液之氣가 도달하는 증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太陰人은 胸臆之汗⁴⁾이 나와 건강한 생리 상태로 인지하므로 陽剛堅密하여 腠理가 폐색되는 것은 병적인 조건인 것이다. 그러므로 虛汗과 陽剛堅密은 少陰人和 太陰人の 생리와 병리 상태를 비교한 것으로 보이며 동일한 증상이 四象體質에 따라 完實의 건강조건이 될 수도 있고 病證의 병리적 조건이 될 수도 있음을 제시한 것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恒心이 物化된 大病

둘째, 恒心이 조절되지 않아 발생하는 病證으로의 大病을 살펴보자. 太少陰陽人の 恒心을 제시하고 恒心이 寧靜할 경우와 恒心이 益多할 경우를 제시하면서 恒心이 益多할 경우는 放心이 桎梏하고 物化되어 大病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太陰人 恒有怯心 怯心寧靜 則居之安 資之深 而造於道也 怯心益多 則放心桎梏 而物化之也 若怯心

3) “論曰 張仲景所論 太陽傷風 發汗惡寒者 卽 少陰人 腎受熱表熱病也 此證 發熱惡寒而無汗者 當用 桂枝湯 川芎桂枝湯 香蘇散 芎歸香蘇散 藿香正氣散 發熱惡寒而有汗者 此亡陽初證也 必不可輕易視之 先用 黃耆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 三日連服 而汗不止 病不愈 則當用 桂枝附子湯 人參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4) “太陰人 背部後面 自腦以下 有汗 而面部髮際以下 不汗者 匈證也 全面 皆有汗 而耳門左右 不汗者 死證也 大凡太陰人汗 始自耳後高骨 面部髮際 大通於胸臆間 而病解也 髮際之汗 始免死也 額上之汗 僅免危也 眉稜之汗 快免危也 顱上之汗 生路寬闊也 脣頤之汗 病已解也 胸臆之汗 病大解也 嘗見此證 額上汗 欲作眉稜汗者 寒厥之勢 不甚猛也 顱上汗 欲作脣頤汗者 寒厥之勢 甚猛 至於寒戰叩齒 完若動風 而其汗 直達兩腋 張仲景所云 厥深者 熱亦深 厥微者 熱亦微 蓋謂此也 此證 寒厥之勢 多日者 病重之勢也 寒厥之勢 猛峻者 非病重之勢也.” 『東醫壽世保元』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

至於怕心 則大病 作而怔忡也 怔忡者 太陰人病之重證也. 少陽人 恒有懼心 懼心寧靜 則居之安 資之深 而造於道也 懼心益多 則放心桎梏 而物化之也 若懼心 至於恐心 則大病 作而健忘也 健忘者 少陽人病之險證也. 少陰人 恒有不安定之心 不安定之心 寧靜 則脾氣 卽活也 太陽人 恒有急迫之心 急迫之心 寧靜 則肝血 卽和也.”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

Table 2. 太少陰陽人の 恒心과 大病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
恒心	不安定之心	懼心	怯心	急迫之心
恒心	寧靜	脾氣活		肝血和
恒心	益多	恐心	怕心	
大病		健忘	怔忡	

太陰人 怯心과 少陽人 懼心の 恒心이 안정되던 道에 이를 수 있으나 恒心이 더욱 심해져 放心으로 막혀져 物化되면 怯心은 怕心으로, 懼心은 恐心으로 변화되어 怔忡과 健忘의 大病이 발생할 수 있다. 少陽人の 健忘은 險證으로 太陰人の 怔忡은 重證으로 제시하여 少陽人の 健忘이 太陰人の 怔忡⁵⁾보다는 더욱 重證임을 알 수 있다⁶⁾.

- 5) 怔忡은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의 胃脘寒證癘病의 太陰人 환자의 素證으로 언급되어 있다.
 “嘗治 太陰人 胃脘寒證 癘病 有一太陰人 素有怔忡無汗氣短結咳忽焉 又添出一證 泄瀉 數十日不止 卽 表病之重者也 用 太陰調胃湯 加梛根皮一錢 日再服十日 泄瀉方止 連用三十日 每日 流汗滿面 素證 亦減而 忽 其家五六人 一時癘疫 此人 緣於救病 數日不服藥矣 此人 又染癘病癘證 粥食無味 全不入口 仍以 太陰調胃湯 加升麻 黃芩 各一錢 連用十日 汗流滿面 疫氣少減而 有二日 大便不通之證 仍用 葛根承氣湯 五日而 五日內 粥食大倍 疫氣大減而 病解 又用 太陰調胃湯 加升麻 黃芩 四十日調理 疫氣既減 素病亦完.”
 『東醫壽世保元』 「太陰人胃脘寒證癘病」
- 6) 病的 輕重危險로 구분한다면 重證보다 險證은 더 重한 病人 것은 『東醫壽世保元』 病證論의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重證과 險證을 비교하여 病證을 설명한 다음의 원문들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險證之太陰病 陽證之鬱狂病 有輕證重證也 險證之少陰病 陽證之亡陽病 有險證危證也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 論曰 張仲景所論 太陰病 少陰病 俱是少陰人 胃氣虛弱泄瀉之證 而太陰病泄瀉 重證中平證也 少陰病泄瀉 危證中險證也.” 「少陰人胃受寒裡寒病論」
 “太陽太陰之病 六七日 或成危證 或成重證 而十日內 必有險證 陽明少陰之病 自始發 已爲重證 而二三日內 亦致險證 是故 陽明少陰之病 不可不察於始發也 太陽太陰之病 不可不察於四五日間也.” 「少陰人泛論」
 “論曰 消渴者 病人胸次 不能寬遠闊達 而陋固膠小 所見者淺 所欲者速 計策鶻突 意思艱乏 則大腸清陽 上升之氣 自不快足 日月耗困 而生此病也. 胃局清陽 上升 而

少陽人 健忘과 太陰人 怔忡의 大病은 少陽人 懼心과 太陰人 怯心の 恒心이 지나쳐 物化되어 몸의 病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상의학의 병증관에서는 心の 상태가 조절되지 않으면 物化되어 形化될 수 있다는 것과 物化되어 形化된 것은 신체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는 사상의학에서 중시하는 心身一如의 心身醫學의 특징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조문을 통해 心の 조절 여하에 따라 신체적인 증상의 발생이 조절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으로 大病은 心身醫學으로서의 病證 認識의 核心이 되는 병증이다⁷⁾. 그러므로 心身醫學의 側面에서 大病을 언급할 경우는 恒心이 物化된 怔忡과 健忘을 중심으로 한 病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恒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3) 恒心은 性氣와 情氣로 조절될 수 있다.

大病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恒心을 조절해야 할 것이다. 의학적으로 大病은 恒心의 조절 여하에 따라 발생하며 恒心은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 제시하듯이 性氣와 情氣를 통해 恒心을 조절할 수 있다.

“余足之曰 太陰人 察於外 而恒寧靜怯心 少陽人 察於內 而恒寧靜懼心 太陽人 退一步 而恒寧靜急迫

不快足於頭面四肢 則成上消病 大腸局清陽 上升 而不快足於胃局 則成中消病 上消 自爲重證 而中消 倍重於上消 中消 自爲險證 而下消 倍險於中消. 上消 宜用涼膈散火湯 中消 宜用忍冬藤地骨皮湯 下消 宜用熟地黃苦蔘湯 尤宜寬闊其心 不意膠小其心 寬闊 則所欲必緩 清陽上達 膠小 則所欲必速 清陽下耗.” 「少陽人胃受熱裡熱病論」

- 7) 韓醫學에서는 心の 상태가 物化되어 病證으로 되는 개념은 생소하다. 즉 기존 의학에서 四情과 七情으로 인해 病이 發生함은 認識하여 喜怒哀樂이나 七情은 病因으로 認知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병리 기전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대개의 情志傷 즉 健忘과 怔忡 등의 증상들은 心病證 즉 心血虛 心陰虛 心氣虛나 혹은 心腎不交 등의 辨證 범주 아래에서 설명되어 진다. 그에 반해 東武는 喜怒哀樂 뿐만이 아니라 心慾까지 구체적인 病因으로 제시하고 太少陰陽人の 病因과 病機를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 의학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병증관이다. 情志傷에 대한 대표적 언급인 『黃帝內經素問』 「舉痛論」의 내용을 첨부한다.
 “帝曰: 善. 余知百病生於氣也 怒則氣上 喜則氣緩 悲則氣消 恐則氣下 寒則氣收 炅則氣泄 驚則氣亂 勞則氣耗 思則氣結 九氣不同 何病之生”
 『黃帝內經素問』 「舉痛論」

之心 少陰人 進一步 而恒寧靜不安定之心 如此 則必無不壽.”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

太陰人과 少陽人은 內守와 外勝하고자 하는 情氣를 조절하여 察於外하고 察於內하여 恒心을 寧靜할 수 있으며 太陽人과 少陰人은 進退하고자 하는 性氣를 조절하여 退一步, 進一步함으로 인해 恒心을 寧靜할 수 있다.

“太陽之性氣 恒欲進而不欲退 少陽之性氣 恒欲舉而不欲措 太陰之性氣 恒欲靜而不欲動 少陰之性氣 恒欲處而不欲出. …… 太陽之情氣 恒欲爲雄 而不欲爲雌 少陰之情氣 恒欲爲雌 而不欲爲雄 少陽之情氣 恒欲外勝 而不欲內守 太陰之情氣 恒欲內守 而不欲外勝.”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이와 같이 太少陰陽人의 性氣와 情氣의 조절을 통해 恒心을 安定하여 大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怔忡과 健忘의 病證이 발생하기까지 東武公은 心의 調節을 重視하며 物化된 病證에서도 本을 心에 두고 調節하는 것을 重視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상의학에서의 大病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完實과 對가 되는 大病과 恒心益多해서 발생하는 大病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完實과 對가 되는 大病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병증의 정도를 볼 수 있지만 恒心이 益多한 大病은 重證이나 險證으로 병의 경증을 설명하기 때문에 두 大病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⁸⁾.

2. 大病의 基源은 무엇인가 ?

1) 肺脾肝腎의 意魄魂志

心身病證으로서 大病의 基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東武公의 초기 저작인 『東武遺稿』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찾아 볼 수 있다.

“肺意決 則能哭泣 脾魄壯 則能歌唱 肝魂定 則能言談 腎志裕 則能嘻笑 肺意阻 則怔忡作 脾魄蕩 則愧亂作 肝魂了 則恹荒作 腎志促 則健忘作.” 『東武遺稿』 「總論」

“肺意快則能哭泣 脾魄壯則能歌唱 肝魂寧則能話談 腎志裕則能善笑 肺意阻則怔忡作也 脾魄蕩則愧亂作也 肝魂淫則恍惚作也 腎志促則健忘作也.”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病變第五統」

위의 자료에 근거하면 肺脾肝腎의 意魄魂志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발현될 경우는 哭泣 歌唱 話談 善笑하게 되나 만일 장애를 받을 경우 怔忡, 愧亂, 恍惚, 健忘의 증상이 나타난다. 본 조문에서는 肺脾肝腎의 意魄魂志 기능이 잘 발현될 때의 증상과 장애를 받았을 때의 증상만을 언급하였을 뿐 病證을 太少陰陽人과 연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의 내용과 비교하여 유추한다면 太少陰陽人의 각기 偏小之臟의 意魄魂志 기능이 장애를 받을 경우에 怔忡, 愧亂, 恍惚, 健忘의 증상이 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태음인의 경우 偏小之臟인 肺意의 기능이 취약하여 怔忡이 발생하며 少陽人의 경우 偏小之臟인 腎志의 기능이 취약하여 健忘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太陰人의 怔忡과 少陽人의 健忘만을 언급하였지만 『東武遺稿』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내용을 고려하면 少陰人의 手足愧亂으로 볼 수 있는 愧亂과 太陽人의 大病으로 볼 수 있는 恍惚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3. 『東武遺稿』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大病

	肺意	脾魄	肝魂	腎志
快壯寧裕	哭泣	歌唱	話談	善笑
阻蕩淫促	怔忡	愧亂	恍惚	健忘

肺脾肝腎의 意魄魂志의 기능장애로 인한 怔忡, 愧亂, 恍惚, 健忘의 病證이 발생하며 少陰人과 太陽人의 大病은 愧亂과 恍惚로 추정해 볼 수 있다.

2) 意魄魂志와 肺脾肝腎, 神氣血精, 喜怒哀樂

그렇다면 意魄魂志는 무엇인가? 意魄魂志는

8) 현재 大病은 unhealthy state(condition)나 mild disease로 번역하기도 하고 Choi Seung Hoon의 『Longevity and Life Preservation in Oriental Medicine』에서는 severe problem으로 번역하고 있기도 한다. Unhealthy state나 mild disease는 完實과 對가 되는 大病의 번역에 국한하고 健忘과 怔忡에 대해서는 각기 重證과 險證에 해당되므로 severe problem으로 번역하여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肺脾肝腎의 기능을 서술하면서 ‘肺藏意 脾藏魄 肝藏魂 腎藏志 意妙伸 魄活動 魂安靜 志忽屈’ 라고 언급하듯이 폐비간신의 藏하는 바로 정신활동의 기본 물질과 기능으로 볼 수 있으며 屈伸動靜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肺旺春 脾旺夏 肝旺秋 腎旺冬 春氣生 夏氣長 秋氣收 冬氣藏 肺象木 脾象火 肝象金 腎象水 木氣發 火氣鬱 金氣澁 水氣泄 肺以呼 脾以束 肝以緩 腎以吸 呼則遠 束則大 緩則廣 吸則深 肺能哀 脾能怒 肝能喜 腎能樂 哀則直 怒則栗 喜則寬 樂則溫 肺充神 脾充氣 肝充血 腎充精 神凝散 氣完聚 血和行 精畜止 肺藏意 脾藏魄 肝藏魂 腎藏志 意妙伸 魄活動 魂安靜 志忽屈.”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原人·第五統」

意魄魂志⁹⁾는 인체 내에서 神氣血精의 周而暢하는 기능에 의해 편안해지고 意魄魂志의 기능이 잘 발휘되어야 哭泣, 歌唱, 話談, 善笑하게 되는 것으로 神氣血精의 영향을 받는다.

“神安意 氣安魄 血安魂 精安志 首能伸 肱能收 腹能放 股能屈 肺安學 脾安問 肝安思 腎安辨 耳能聽 目能視 舌能言 頤能貌 精神氣血之能 周而暢也 周而暢 故載萬物也 首腹股肱之能 堅而勤也 堅而勤 故行萬物也 肺脾肝腎之能 忍而容也 忍而容 故知萬物也 耳目鼻口之能 敏而捷也 敏而捷 故覆萬物也.”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原人·第四統」

그러나 悲哀動中, 逸樂無已, 恐慎守失, 喜嗜無節의 상태가 되면 意魄魂志가 亂하게 되어 손상을 받게 된다.

“怒極者 怒之不勝其忿 而悲哀動中則 肝魂亂也 喜極者 喜之長往不返 而逸樂無已則 脾靈¹⁰⁾亂也 哀

9)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原人·第四統」에서는 意魄魂志가 魂魄心意로 표현되기도 하고 知膽心意로 표현이 되기도 한다. 하나의 편에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는 동무공의 글에서는 흔치 않다. 『格致彙』의 物四端인 志膽慮意과 연관된다.

10) 『東武遺稿』 「總論」에서는 脾魄으로 되어 있다.

極者 哀之極 渴瘋思 而恐慎守失則 腎志亂也 樂極者 樂之必充 侈心 而喜嗜無節則 肺意亂也.”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原人·第三統」

3) 神靈魂魄과 意慮操志의 전단계인 意魄魂志

意魄魂志는 『東醫壽世保元』 「臟腑論」과 비교해 보면 神靈魂魄과 意慮操志의 전단계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肺脾肝腎이 意魄魂志를 藏하나 『東醫壽世保元』에 이르러서는 後四海인 髓海, 膜海, 血海, 精海에서 神氣血精을 藏하고 前四海인 津海, 膏海, 油海, 液海에서 意慮操志를 藏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 외에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身에 해당되는 것을 ‘首能伸 肱能收 腹能放 股能屈’ 이라 하여 首腹股肱으로 설명하는 것과 肺脾肝腎의 부위를 肩背, 胸膈, 兩脇, 腰腸으로 설명하는 것에서 身의 전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肺部盛則肩背暢 脾部盛則胸膈通 肝部盛則兩脇張 腎部盛則腰腸雄 肺部衰則皮毛焦 脾部衰則肉理寒 肝部衰則筋脉酸 腎部衰則骨髓枯.”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病變第五統」

이는 肺脾肝腎에 대한 인식 체계와도 상통하는 것으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肺脾肝腎이 知와 行을 동시에 관장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意魄魂志를 동일 선상에서 언급할 수 있었던 것이다.

“肺知事務 脾知交遇 肝知黨與 腎知居處 肺行籌策 脾行謀猷 肝行材幹 腎行便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原人·第一統」

이와 같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身의 腹背의 구분 즉, 前後四海의 구분 개념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으나 『東醫壽世保元』에서는 頭肩腰腎, 頤臆臍腹의 개념과 病證에서 表裏 개념에 근거하여 前後四海의 구분이 더욱 확고해진 것으로 보인다.

意魄魂志는 前後四海에서 藏하는 정신적인 기능 神靈魂魄과 意慮操志가 구분되기 이전의 개념

으로 怔忡 健忘의 大病은 초기에는 肺脾肝腎의 意魂魄志의 정신 기능과 활동이 장애를 받아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서 막연히 가상의 공간과 물질로 보여지던 前後四海의 기능이 초기 병증에서 실제로 기능하는 부위였음을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다. 즉 神靈魂魄과 意慮操志가 怔忡, 恍惚, 健忘, 手足愧亂의 心身證을 유발하는 실제적인 매개체였던 것이다.

3. 恒心의 基源은 무엇인가

1) 孟자의 恒心

大病은 太少陰陽人의 恒心이 조절되지 않아 발생한다. 그렇다면 太少陰陽人의 恒心은 어떤 근거에서 출발한 것일까? 恒心은 基源은 『孟子』 「梁惠王章句上」과 「滕文公章句上」의 ‘有恒產者 有恒心 無恒產者 無恒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王曰 吾惛 不能進於是矣 願夫子 輔乎志 明以教我 我雖不敏 請嘗試之 曰 無恒產而有恒心者 惟士爲能 若民則無恒產 因無恒心 苟無恒心 放辟邪侈 無不爲已 及陷於罪然後 從而刑之 是罔民也 焉有仁人在位 罔民 而可爲也。” 『孟子』 「梁惠王章句上」

“民之爲道也 有恒產者 有恒心 無恒產者 無恒心 苟無恒心 放辟邪侈 無不爲已 及陷乎罪然後 從而刑之 是罔民也 焉有仁人在位 罔民 而可爲也。” 『孟子』 「滕文公章句上」

孟子는 梁惠王이나 滕文公과의 대화를 통해 일정한 재산이 없으면서도 항상 일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오직 선비만이이며 일반 백성은 일정한 재산이 없으면 그로 인하여 항상 일정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지며 방자함, 편벽됨, 사악함, 사치스러움 등을 하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며 그리하여 죄에 빠진 다음에 백성들을 벌주는 것은 그물질하는 것으로 왕도정치를 실행함에 있어 먼저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한 연후에 인간의 본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孟子는 恒心¹¹⁾을 회복하여 恒心에 따라 사는 君

11) 朱子는 ‘恒心은 人所常有之善心也’라고 註를 하였다.

子는 몸은 마음의 움직임을 실천하는 도구에 불과하여 몸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식주나 돈 등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지만 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돈이나 재산이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삶을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의 방법으로 일반백성들에게 일정한 재산과 생업이 있도록 해야 한다.

孟子가 王道政治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恒心을 유지하는 방편 중의 하나인 恒產을 일반 백성들에게 일정하게 유지해 줄 것을 강조하는 것에서 恒心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東武公의 四象醫學으로 흡수하여 太少陰陽人의 恒心을 제시하게 된다. 恒心의 표현 자체는 孟子에서 인용을 하였으나 恒心의 내용에 있어서는 『大學』 七章의 「正心章」의 내용을 토대로 체계를 잡았다.

2) 大學의 正心

『大學』의 「正心章」에서 修身을 하기 위해서는 正心을 하여야 하는데 正心을 얻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忿懣, 恐懼, 好樂, 憂患이 東武公 恒心의 개념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所謂脩身 在正其心者, 身(心)有所忿懣, 則不得其正, 有所恐懼, 則不得其正, 有所好樂, 則不得其正, 有所憂患, 則不得其正. 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 此謂脩身 在正其心.¹²⁾” 『大學章句·七章』

「正心章」에서 修身과 正心에 대한 설명으로, 修身을 하기 위해서는 正心 즉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하며 마음에 분해하고 노여워하는 忿懣之心, 두려워하는 恐懼之心, 좋아하는 好樂之心, 근심하고 걱정하는 憂患之心¹³⁾의 작용이 없을 수는 없으나

12) 이에 대해 朱子는 忿懣, 恐懼, 好樂, 憂患의 네 가지는 모두 心의 用으로 사람에게에는 없을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朱子曰 四者 皆心之用 而人所不能無者 然一有之而不能察 則欲動情勝 而其用之所行 或不能不失其正矣.” 『心經』 「正心章」

13) 『心經附注』에서 仁山金氏는 ‘忿懣, 恐懼, 好樂, 憂患의 네 가지는 喜怒哀樂이 發한 것이니 마음의 用이어서 사람이 없을 수 없는 것인데 어찌하여 이것을 미워하여 그 마음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였는가’ 라고 하여 喜怒哀樂이 발한 마음의 쓰임으로 언급하였고,

스스로 삼가고 살피지 않으면 마음이 평정을 잃고 사사로움에 치우치고 바름을 잃게 됨을 말한 것이다.

『大學』에서 正心을 강조하기 위한 忿懣, 恐懼, 好樂, 憂患의 마음을 東武公은 『格致藁』 「儒略」에서는 『孟子』의 四夫之心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獨行篇」에서는 『孟子』 四夫에서 출발한 鄙薄貪懶人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太少陰陽人과 연결하여 설명하는데 이는 모두 『東醫壽世保元』의 太少陰陽人의 恒心인 急迫之心, 怯心, 懼心, 不安定之心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3) 東武의 恒心

『格致藁』에서 正心에 대해 언급되는 부분을 나누어 보면 「儒略」의 事物과 天下索我的 내용과 「獨行篇」에서 언급되는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儒略」의 事物에서는 忿懣, 恐懼, 好樂, 憂患을 孟子의 四夫之人과 연결하여 마음 상태를 설명하며 또한 仁義禮智를 제대로 行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一天之同胞 好德者多助 嗜利者寡助 薄夫之心常憂患也. 萬物之群居 謹厚者必興 殘刻者必亡 頑夫之心常恐懼也. 四方之會通 周蜜者能成 格戾者不入 懦夫之心常忿懣也. 百工之和利 有恥者能任 偷惰者不行, 鄙夫之心常好樂也. 不可不反誠然後 與衆同濟而不憂患也 不可不克勤然後 與物俱立而不恐懼也, 不可不擴慧然後 有學有教而不忿懣也 不可不遍能然後 有爲有守而不好樂也. 昧昧我後蒙思之古之聖人 言必稱仁義禮智者 誠以一身重寶 不可失也 後人私心揣之 以仁義禮智 有似利於公不利於私

성백효는 그의 譯註 心經附注에서 忿懣, 恐懼, 好樂, 憂患의 네 가지 중에서 忿懣는 怒로, 恐懼는 懼로, 好樂은 樂으로 七情에서 세 가지를 뽑은 것으로 憂患은 없으나 憂患 또한 七情 밖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七情은 喜怒哀樂愛惡欲 또는 喜怒哀樂愛惡懼이다. “仁山金氏曰 忿懣恐懼好樂憂患 四者 喜怒哀樂之發乃心之用 而人所不能無者 則何惡於是 而便以爲不得其正哉.” 『心經』 「正心章」

然而而叛之 嗚乎 聖人豈欺汝後生乎? 無目則無視 無耳則無聽 耳目廢而聾瞽則豈美形人乎哉? 不智則無助而憂患 不仁則不立而恐懼 無禮則格戾而忿懣 無義則偷惰而好樂 是可堪乎 可哀也已 孟子曰 人之有四端 猶其有四體也 有是四端而 自謂不能者 自賊者也 不其丁寧之乎?” 「儒略」 事物

이상의 事物의 내용을 바탕으로 四夫, 心慾, 四德 등을 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다.

Table 4. 「儒略」의 事物編의 四夫와 忿懣, 恐懼, 好樂, 憂患

四夫	四不正心	勤能慧誠	仁義禮智	私放逸欲	奢侈懶詐	事心身物
頑夫	恐懼	勤	仁	欲	詐	物
鄙夫	好樂	能	義	放	侈	身
懦夫	忿懣	慧	禮	逸	懶	心
薄夫	憂患	誠	智	私	奢	事

四夫, 不正心, 勤能慧誠과 四德의 仁義禮智, 東武가 제시한 私放逸欲과 奢侈懶詐 등이 모두 연결됨을 볼 수 있다. 이는 事心身物의 四象과도 연결되어 東武公의 四象哲學의 기본 바탕이 된다.

「儒略」에서는 四德과 不正心의 주체를 『孟子』의 頑夫, 鄙夫, 懶夫, 薄夫의 四夫로 서술하였으나 『格致藁』 「獨行篇」에서는 『大學』의 四不正心을 鄙薄貪懶人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¹⁴⁾.

“鄙者之心 恒有憤懣之心者 恒不得所欲之故也 懦者之心 恒有好樂之心者 恒欲得所欲之故也 貪者之心 恒有恐懼之心者 取於人者 不爲不多 而恒不繼之故也 薄者之心 恒有憂患之心者 吝於己者 不爲不密 而恒不足之故也.” 『格致藁』 「獨行篇」

이를 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다. 「儒略」의 事物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비교하면 頑夫, 鄙夫, 懶夫, 薄夫가 鄙薄貪懶者와 다르듯이 仁義禮智에 대

14) 「獨行篇」의 鄙薄貪懶者를 중심으로 한 아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윤덕영, 고병희. 독행편에 나타난 鄙薄貪懶者에 대한 고찰. 사상학회지. 1996;8(1):57-73.

한 연결이나 不正心과의 연결이 모두 「儒略」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獨行篇」에서는 좀 더 자세히 忿懣, 恐懼, 好樂, 憂患의 마음이 발하게 되는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鄙人의 마음에 늘 분한 마음이 있는 것은 언제나 하고자 하는 바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며, 懶人의 마음에 늘 즐기는 마음이 있는 것은 늘 하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며, 貪人의 마음에 늘 두려워 겁내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남에게 취한 것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니나 늘 계속해서 취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薄人의 마음에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자기를 아기는 것이 치밀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래도 항상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鄙薄貪懶人의 不正心이 발하게 되는 이유를 자세히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Table 5. 「格致藁」의 鄙薄貪懶者와 忿懣, 恐懼, 好樂, 憂患

心欲	不正心	鄙薄貪懶者	仁義禮智	私放逸欲
吝於己者 不爲不密而恒不足之故	憂患之心	薄者	仁	私
取於人者 不爲不多而恒不繼之故	恐懼之心	貪者	義	放
恒不得所欲	憤懣之心	鄙者	禮	欲
恒欲得所欲	好樂之心	懦者	智	逸

이러한 설명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서술과 맥락을 같이 한다. 「格致藁」 「獨行篇」에서 설명하는 不正心이 발하게 되는 이유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原人」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나¹⁵⁾, 「獨行篇」에서 鄙薄貪懶人의 不正心을 서술한 것과는 달리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太少陰陽人의 不正心이 發하게 되는 과정을 언급하고 있다.

“太陽之心 每不得所欲 而忿懣之心 恒放於胸中也 少陰之心 每欲得所欲 而好樂之心 恒放於胸中也 少陽之心 大不得所欲 而憂患之心 恒放於胸中也 太陰之心 大欲得所欲 而恐懼之心 恒放於胸中也.”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原人·第二統」

太陽의 마음은 하고자 하는 바를 매번 얻지 못하여 忿懣之心이 항상 가슴속에 있으며, 少陰의 마음은 하고자 하는 바를 매번 얻고자 하여 好樂之心이 항상 가슴속에 있으며, 少陽의 마음은 하고자 하는 바를 크게 얻지 못하여 憂患之心이 항상 가슴속에 있으며, 太陰의 마음은 하고자 하는 바를 크게 얻고자 하여 恐懼之心이 항상 가슴속에 있다. 또한 太少陰陽人이 事務, 交遇, 黨與, 居處의 人事의 취약한 부분에서 齎侈懶詐함으로 인해 忿懣, 恐懼, 好樂, 憂患의 마음이 發하게 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太陽之人 若不詐於居處則 忿懣之心 無所恒放於胸中也 少陰之人 若不齎於事務則 好樂之心 無所恒放於胸中也 少陽之人 若不懶於黨與則 憂患之心 無所恒放於胸中也 太陰之人 若不侈於交遇則 恐懼之心 無所恒放於胸中也.”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原人·第二統」

위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표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Table 6.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太少陰陽人과 忿懣, 恐懼, 好樂, 憂患

太少陰陽人	齎侈懶詐	人事	心欲	不正心
太陽	私	居處	每不得所欲	忿懣
少陰	齎	黨與	每欲得所欲	好樂
少陽	懶	事務	大不得所欲	憂患
太陰	侈	交遇	大欲得所欲	恐懼

이상의 내용을 살펴 보면 「格致藁」 「儒略」의 事物과 「獨行篇」,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을 통해 忿懣之心, 恐懼之心, 好樂之心, 憂患之心이 四夫의 心에서 鄙薄貪懶人의 心으로 또 太少陰陽人의 心으로 점차 변화하여 정립되는 것을 볼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忿懣之心, 恐懼之心, 好樂之心, 憂患之心이 바탕이 되고 孟子的 恒心의 표현과 어우러져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太少陰陽人의 不安定之心, 怯心, 懼心, 急迫之心의 恒心이 체계를 잡아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忿懣之心, 恐懼之心, 好樂之心, 憂患之心에서 不安定之心, 怯心, 懼心, 急迫之心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의문

15) 「獨行篇」의 저술 시기가 東武公이 46세 되던 해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저술 시기를 그 즈음이나 그 이후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남는다.

『大學』의 正心에서 『東醫壽世保元』의 恒心으로 발전한 것은 단순한 心의 차원에서 설명되던 것이 東武公의 四象哲學 속에서 心의 개념에 性氣와 情氣의 개념이 더욱 포함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東武가 「四象人辨證論」에서 恒心을 조절할 수 있는 因子로 性氣와 情氣의 조절을 들었다. 즉 性氣와 情氣의 氣의 방향을 조절함으로써 恒心이 寧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반대로 恒心에 性氣와 情氣의 개념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余足之曰 太陰人 察於外 而恒寧靜怯心 少陽人 察於內 而恒寧靜懼心 太陽人 退一步 而恒寧靜急迫之心 少陰人 進一步 而恒寧靜不安定之心 如此 則必無不壽。”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

『大學』의 不正心은 心의 用으로 喜怒哀樂이 發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善惡의 價値 基準을 가지고 접근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에, 太少陰陽人의 恒心은 心에 進學靜處나 雌雄內守外勝의 氣의 방향 개념이 들어가며 그 자체로서 善惡의 가치 개념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恒心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는 物化되어 인체에 병리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질병을 발생하게 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의학적으로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恒心 외에 放縱, 偷逸, 偏私, 極慾의 心慾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¹⁶⁾.

『格致藁』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내용을 통해서 ‘忿懣之心, 恐懼之心, 好樂之心, 憂患之心이 단순히 동일하게 서술되지 않았다’라고 인식하기보다는 『孟子』의 恒心과 『大學』의 正心에서 출발하여 『格致藁』의 「儒略」과 「獨行篇」,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을 거치면서 東武公의 생각이 보다 정립되어 『東醫壽世保元』에서의 不安定之心, 怯心, 懼心, 急迫之心의 恒心으로 체계를 잡아가고 『東醫壽世保元』에서 恒心의 心의 상태가 조절되지 않아 物化되어 病證으로 발전하여 心身醫學의 病證觀의 핵심으로 大病을 제

시한 것에 가치와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Ⅲ. 結論

이상에서 『東醫壽世保元』의 恒心과 大病을 파악하기 위해 東武公의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東武遺稿』, 『格致藁』와 『孟子』, 『大學』, 『心經』을 살펴 보아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太少陰陽人의 大病은 恒心의 心의 상태가 조절되지 않아 物化되고 形化되어 나타난 少陽人의 健忘과 太陰人의 怔忡의 大病이 四象醫學의 心身醫學의 病證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恒心은 太少陰陽人의 性氣와 情氣를 통해 조절할 수 있다.

2. 大病에 대한 初期 認識은 肺脾肝腎의 意魄魂志에 의한 정신활동이 장애를 받아 大病이 발생하며 意魄魂志는 神氣血精의 周而暢하는 기능에 의해 안정되고 喜怒哀樂의 情에 의해 손상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

3. 肺脾肝腎의 意魄魂志는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서 언급되는 神靈魂魄과 意慮操志의 진단개 개념으로 腹背의 前後가 구분되기 전 개념이다.

4. 東武公의 恒心은 『孟子』의 ‘有恒産者 有恒心’과 『大學』의 正心을 위한 ‘忿懣之心, 恐懼之心, 好樂之心, 憂患之心’의 不正心에 근거한 것으로 『格致藁』 「儒略」에서는 四夫와 연결하고 「獨行篇」에서는 鄙薄貪懶者와 연결하며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太少陰陽人과 연결되었다.

5.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太陽人은 하고자 하는 바를 매번 얻지 못하여 忿懣之心이, 少陰人은 하고자 하는 바를 매번 얻고자 하여 好樂之心이, 少陽人은 하고자 하는 바를 크게 얻지 못하여 憂患之心이, 太陰人은 하고자 하는 바를 크게 얻고자 하여 恐懼之心의 不正心이 發하는 것으로 認知하였다.

6. 『孟子』의 恒心과 『大學』의 正心에서 東武公의 恒心으로 발전한 것은 東武 哲學의 心의 차원에서 설명되던 것이 性氣와 情氣의 氣의 방향

16)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념이 포함되어 의학적 개념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格致藁』의 「儒略」과 「獨行篇」,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을 거쳐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恒心은 不安定之心, 怯心, 懼心, 急迫之心으로 체계가 잡혔고 恒心의 心의 상태가 조절되지 않아 物化된 大病을 제시함으로 心身醫學的 病證觀을 확립하였다.

IV. 參考文獻

- 이제마 저. 량병무, 차광석 역. 東武遺稿. 국역한의학대계15. 해동의학사, 서울, 1999.
- 이제마 저. 이창일 역주. 東武遺稿. 정계출판사, 성남, 1999.
- 이제마 저. 지규용 역해. 東武格致藁譯解. 영림사, 서울, 2001.
- 성백효 역주. 懸吐完譯孟子集註. 전통문화연구회, 서울, 1998:40-41, 144-145.
- 성백효 역주. 懸吐完譯大學中庸集註. 전통문화연구회, 서울, 1998:35-36.
- 이기동 역해. 孟子講說. 성균관대학교출판국, 서울, 1994:61-64, 222-225.
- 이기동 역해. 大學中庸講說. 성균관대학교출판국, 서울, 1991:60-62.
- 대산 김석진. 대산대학강의. 한길사, 서울, 2000:140-145.
- 心經. 학민문화사, 대전, 1995.
- 성백효 역주. 譯註心經附注. 전통문화연구회, 서울, 2002:164-188.
- 윤종빈. 운암한석지의 맹자신강. 문경출판사, 대전, 2002.
- 전국한의과대학병리학교실. 한방병리학. 한의문화사, 서울, 2001:52-58, 287-307.
- 王新華 편저. 중의역대의론선. 江蘇科學技術出版社, 강소성, 1983:40-47.
- 楊思樹 張樹生 傅景華 主編. 이장훈. 동의임상내과학 I. 법인문화사, 서울, 1999:464-475.
- 楊思樹 張樹生 傅景華 主編. 안세영. 동의임상내과학II. 법인문화사, 서울, 1999:859-877
- 윤덕영, 고병희. 독행편에 나타난 비박탐나자에 대한 고찰. 사상의학회지. 1996;8(1):57-73.
- 장현진, 고병희, 송일병. 독행편의 구성과 지인론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1;3(1):23-34.
- 조황성, 고병희, 송일병. 이제마의 격치고중유략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1;3(1):35-66.
- Lee Je Ma, Choi Seung Hoon. Longevity and Life Preservation in Oriental Medicine. KHUP, 서울, 1996: 187-188.